합니다. 그리고 그 협력은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을 향한 아시아의 미래 비전에 대한 공유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로운 세계란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화뿐 아니라 무질서와 차별, 갈등과 불평등이 없는 상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조화롭게 통합되고 협력의 기운이 넘치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평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는 2005년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이래, 10년 넘게 평화를 실천해 온 지방정부입니다. 그리고 최근 제주는 통념적 평화의 개념을 넘어 '새로운 평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청정 제주의 대자연이 주는 '치유의 평화', 다양한 가치와 이해를 모두 포용하는 '관용의 평화',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전 과정이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에너지 평화'가 제주의 새로운 평화입니다. 제주가 중심이 되어 실천하는 '새로운 평화'는 우리의 관념 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평화가 발원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이익이 창출되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이 평화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산업'입니다. 제주가 추진하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는 세계를 향한 제주형 평화산업입니다.

평화가 관념적 논의의 대상이나 바람직한 상태를 제시하는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실천적 솔루션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는 인류가 공동 번영으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마주해야 할 가치이고 비전입니다. 세계는 지정학적 긴장과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 자유주의의 퇴조와 포퓰리즘의 확산으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들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글로벌 평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제주포럼이 하겠습니다.

제주포럼은 새로운 평화를 토론하고 진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뜻을 모으는 광장으로, 평화산업을 발전시키는 평화 기업가로서의 역할을 꾸준하고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평화'의 토양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주포럼이 평화와 번영의 아시아를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안정적 질서 구축을 위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주가 세계를 향해 발신하는 평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머무시는 동안 평화롭고 아름다운 제주의 대자연이 주는 매력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개회식 축사]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200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세계 진보의 열쇠는 '비전 공유'

제1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의 훌륭한 연설과 그 연설에 담긴 생각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이 포럼을 개최하신 포럼 관계자 모든 분께 축하를 전하고 싶습니다. 올해 제주포럼은 정말로 고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국 장관, 전임 장관, 전직 국가수반, 정부 지도자 그리고 모든 귀빈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는 한국의 문재인 신임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의 의견은 훌륭했습니다. 저는 제주도 방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섬에 와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주포럼은 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비전 공유라는 고무적 메시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동의 비전은 오늘날 세계가 만들어가야 할 번영에 필수적 요소입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데, 그것은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2017년 세계가 맞은 도전과제의 핵심은 우리가 멀리 그리고 빨리 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부를 축적해가는 이때에 아시아의 공통된, 절대적으로 필수적이고 고무적인 목표입니다.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정에서 우리는 전 세계 공통된 비전의 등장을 목격했습니다. 이 비전은 우리가 빠르게 가면서도 멀리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것입니다. 제주포럼은 여러 해 동안 외교에 초점으로 두고 외교정책, 환경, 안보, 경제 이슈에 관한 동아시아와 아시아를 아우르는 국제협력의 공간을 제공해 온 결과, 평화와 번영에 관한 모범적인 다자 대화의 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국제적으로 협력과 협동을 위한

공통의 비전을 추구하고, 평화와 번영에 직결된 기후문제 해결을 포함한 우리 시대 최대의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을 모두 발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훌륭한 행사를 멋지게 개최해 왔을 뿐 아니라 2030년까지 카본프리 아일랜드로 변모하겠다는 약속으로 기후위기 해결에 헌신해 온 제주도에 특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추진해 온 스마트그리드 사업과 2011년 전기차 선도도시로 선정된 것에 대해 제주도를 높이 사고 싶습니다. 원 지사께서도 전기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전기차를 운전합니다. 제주도는 현재 등록된 37만 대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축사를 마치며, 유명한 경제학자 루디 돈부시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만, 그것이 벌어지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빨리 벌어진다.' 우리는 다양한 기술혁명에서 이러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회적, 정치적 혁명에서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 기후를 보전하기 위한 환경운동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손에게 도덕적, 윤리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것이고, 성공했을 때 감사의 대상은 제주도가 될 것입니다.

[세계지도자세션 모두연설]

한승주 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투키디데스 함정'을 피하려면

'아시아의 미래 비전 공유'를 주제로 한 세계지도자세션 좌장을 맡게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아가 불안정과 안정적인 발전이라는 상반된 두 측면을 함께 보여 주는 상황에서 오늘 이 세션이 열리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분열됨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글로벌화라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유무역, 첨단기술, 즉각적인 디지털 소통수단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이 같은 발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국제질서 때문에 실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가결, 이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전 세계적 민족주의 경향의 확산 현상을 보면 글로벌화, 진보주의적 질서, 다자주의로 인해 나타난 변화들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계층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미래 비전 공유'와 관련해 비관론과 낙관론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수정주의적 신흥국과 기성 강대국 간 갈등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투키디데스 함정'을 거론합니다. 다른 이는 신흥강국이 자신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않아 위기를 초래하는 '킨들버거 함정'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에다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위협 문제도 있습니다. 민족주의 발호, 무기경쟁, 지역분쟁으로 인한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밝은 미래를 전망할 만한 여지도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발전 속도가 빠르고 지역 간 협력체제가 충분하진 않아도 서서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역내 국가 간 상호의존도, 인적 교류, 문화협력 역시 하루가 다르게 커지거나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미래에 가로놓인 문제와 장애물이 눈앞에 보일지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아시아의 미래를 향한 밝고 긍정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